



IT&SOCIETY

2012년 주목할 만한 IT기술 트렌드

- 주요 기관별 2012년 IT 기술 전망 분석

Vol8 2011. 12

2012년 주목할 만한 IT기술 트렌드

- 주요 기관별 2012년 IT 기술 전망 분석

I. 서론 / 01

II. 기관별 2012년 IT 기술 전망 분석 / 02

III. 결론 및 시사점 / 21

작 성 : 한영미 책임 (한국정보화진흥원)

요 약

1. 주요 기관별 2012년 IT 기술 전망

- ◎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혁신적 IT 기술들의 발전이 새로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전망
 - － 2012년 IT 분야의 최대 키워드는 모빌리티(Mobility), 빅 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소셜(Social)이 될 것
 - － 이 4가지 기술들이 상호 결합하면서 더욱 파워풀한 서비스와 역동적인 시장을 창출

기관	2012년 IT 기술 전망	
가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태블릿과 그 이후 · 모바일 중심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 · 상황 및 소셜 사용자 경험 · 사물 인터넷 · 앱스토어와 마켓플레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분석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빅 데이터 · 인메모리 컴퓨팅 · 초절전(저전력) 서버
델로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얼리제이션 · 올모스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 사이버 정보 · 혁명가로서의 CIO · ERP의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분석 (Real Analytics) · 소셜컴퓨팅 · 사용자 참여 · 어플라이드 모빌리티 · 역량 클라우드
E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은 ‘간편함’ · 모바일 우선(Mobile First)전략 ·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 빅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수요 증가 · 기업 IT, 외부 IT 서비스 업체와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기술의 부각 · IT 보안의 변화, 새로운 보안 기업 등장 · 대형 IT서비스업체보다 전문화된 IT 서비스 기업이 각광 · 비용은 줄고, 소비는 증가 · 빅 데이터와 분석학,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NI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 4G LTE · 정보보호 · 차세대TV · IT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부품 · 차기정부 IT정책 · 윈도우8 · 스마트기기 · 빅 데이터
삼성 S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지향적 기술 대중화 · 네트워크 통한 협력적 소비 · 게임 메커니즘 활용 비즈니스 · 웹 기반 사물 연결과 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분석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IT · 모바일 컴퓨팅 보안 · 플랫폼 전쟁

2. 2012년 IT 4대 핵심 키워드

□ 혁명의 일상화를 주도하는 모빌리티

- ◎ 스마트폰 2천만 시대 진입과 함께 국내 모바일 시장이 크게 진화
- ◎ 공급과 소비의 주체가 기업 중심에서 인간(Human) 개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시장선점 필요

□ 2012년은 '빅 데이터'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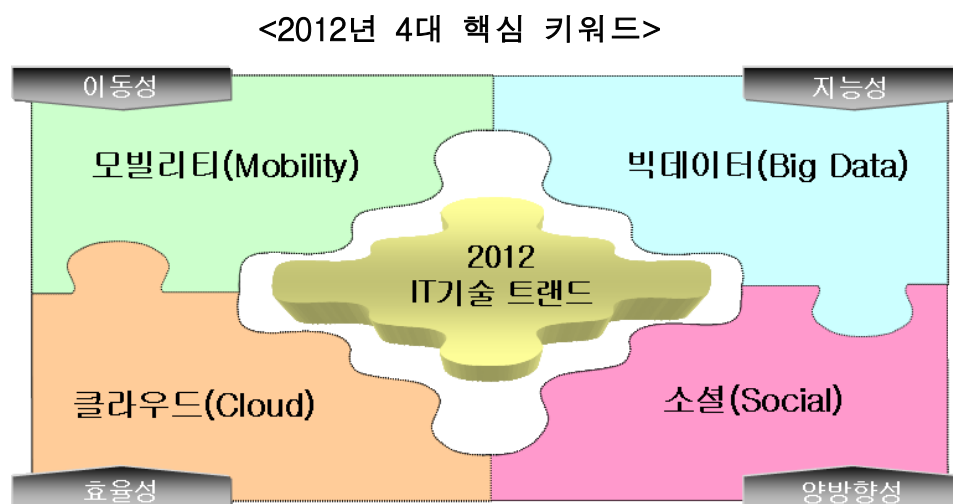
- ◎ 인터넷, 스마트기기,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데이터가 폭증하는 이른바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
- ◎ 폭증하는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실천적인 '빅 데이터 전략'이 필요

□ 여전히 주목받는 클라우드

- ◎ 애플의 아이클라우드(iCloud)로 인해 퍼스널 클라우드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차별화 역량을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

□ 수익을 창출하는 소셜컴퓨팅

- ◎ 지금까지 명확한 수익모델이 없었던 소셜컴퓨팅 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기대



1. 서론

- ◎ 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하여 3.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경제성장률도 3.6%에 그칠 것으로 분석(삼성경제연구소)
 - －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출증가세의 둔화, 대외 무역수지악화,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 약화, 재정지출 확대 등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 국내 IT산업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소비시장 위축으로 2012년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하락할 전망

<2012년 국내 IT산업 전망>

업종		성장률		주요특징
		2011년	2012년	
IT 산업	정보통신 기기	7.2 9.7	5.1(생산) 3.8(수출)	·스마트폰, 컴퓨터 주변기기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생산 감소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 위상은 높아지지만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 감소
	반도체	0.6 1.3	7.6(생산) 8.5(수출)	·DRAM부문 정체국면, 낸드 플래시 수요확대로 소폭 성장 ·메모리 업계의 구조조정 가능성 증대
	디스플레이	-3.8 -5.8	2.5(생산) 5.6(수출)	·2011 공급과잉으로 역성장한 이후 2012년 소폭 회복 ·AMOLED, Flexible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시장 성장
	가전	6.9 6.3	3.6(생산) 3.0(수출)	·TV시장은 선진시장의 역성장으로 성장정체 지속 ·백색 가전시장은 고가 제품 확대로 안정적 성장 전망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SERI),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2011.9.

- ◎ 그러나 美 경제학자 조지프 스펀더의 '혁신이 호황을 이끈다'는 이론처럼 혁신적인 기술은 새로운 투자와 소비를 자극
 - － 모빌리티, 클라우드, 소셜, 빅데이터 등 IT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가능성 제시
 - － 피터 손더가드 가트너 수석 부사장은 'IT가 수동적인 관찰자 역할은 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IT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비즈니스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IT의 중요성을 강조
- ◎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현재, IT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
 - －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IT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2012년 IT 기술전망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내고자 함

※ 가트너, 딜로이트, EMC, KIPA, 삼성SDS의 2012년 IT 기술 전망자료를 요약/분석

2. 기관별 2012년 IT 기술 전망 분석

1. 가트너 : 2012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기술

- 글로벌 IT 리서치 및 컨설팅 전문회사인 가트너(Gartner)는 매년 '가트너 심포지엄/IT 엑스포(Gartner Symposium/IT Expo)'를 통해 **향후 3년간 IT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진 기술들을 발표해** 오고 있음
 - 2011년 10월 가트너는 '**2012년 10대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ys Top 10)**'을 발표

□ 미디어 태블릿¹⁾과 그 이후(Media Tablet and Beyond)

- ◎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면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업무와 개인생활을 처리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근무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모바일 기기의 발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기업은 미디어 태블릿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 수립 필요
 - 기술은 모바일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

□ 모바일 중심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

(Mobile-centric Applications and Interfaces)

- ◎ 미디어 태블릿의 등장으로 2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발전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 시켜 줄 새로운 UI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 윈도우, 아이콘, 포인터 등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UI가 터치, 제스처, 음성, 영상 등 모바일 환경에 맞춰진 UI로 대체
- ◎ 2014년경 앱스토어에서의 연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는 700억 건을 돌파할 것이며, 2010년 앱스토어 환경에 맞춰 개발되었던 툴들은 최소 절반 이상이 사라지거나 다른 툴들과 통합될 것
 - 2015년이면 모바일 웹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여 2011년 네이티브 앱²⁾으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들의 절반 정도가 웹 애플리케이션³⁾으로 제공될 것

1)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운영체제를 탑재한 5~15인치 모바일 기기

2) iOS, 안드로이드OS 등 각 OS에 맞는 언어로 앱을 개발하는 것

3) 운영체제의 종류나 버전 등의 제약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가능 한 응용 소프트웨어

□ 상황 및 소셜 사용자 경험(Contextual and Social User Experience)

- ◎ 상황인식 컴퓨팅은 사용자와 객체 간의 환경, 선호도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안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
 - 즉,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상황(교통 등), 생활패턴(습관, 구매 성향, 기호 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같은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안하는 것
- ◎ 2015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40%가 상황인식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입할 것이고, 2015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황인식 제공업체들(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노키아 등)로부터 디지털습관, 이동정보 등을 추적당할 것으로 예측

□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 사물 인터넷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지만,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향후 비약적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
 -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국한되었던 정보교류를 사람-사물, 사물-사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센서·지능을 사물(객체)에 탑재하고, 인터넷 등과 상호 연결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운영

□ 앱스토어와 마켓플레이스(App Stores and Marketplaces)

- ◎ 가트너는 2014년까지 앱스토어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가 700억 건이 넘어설 것이고, 이는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전망
 -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용자가 수용했던 환경에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될 것
 - 이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제공자와 사용자를 이어주는 중개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기업은 이런 환경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

□ 차세대 분석기술(Next-Generation Analytics)

- ◎ 모바일 환경의 발전과 연결성 향상으로 인해 분석기술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2012년에는 3가지 주요 차원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전통적인 오프라인 분석에서 인라인(내장형) 분석으로 발전
 -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보장되고, 여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분석 기술이 개발
 - ※ 향후 3년 간 문자, 영상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분석 기술이 등장할 것
- ◎ 2012년에 분석기술은 의사결정지원 및 협업 부문에 집중되어 더욱 발전할 전망
 -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에서 훨씬 더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시뮬레이션, 예측, 최적화 및 기타 분석기술이 필요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트너가 3년 연속 채택한 전략기술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잠재력 보유
 - 클라우드 시장이 2011년, 2012년에는 초기 단계에 머무를 것이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 현재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구현할 작업의 선정, 어느 곳에 사설 클라우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이동 중
 - 이제 기업은 클라우드 전 단계를 확보·관리·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데 묶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에 집중해야 함

□ 빅 데이터(Big Data)

- ◎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서면서 데이터의 크기, 포맷의 복잡성, 전송속도, 분석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현재 우리의 관리 능력을 넘어서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확보해야 함
- 데이터관리시스템에서는 맵리듀스(MapReduce) 기술이 각광받을 전망
 - ※ 맵리듀스(MapReduce) :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의 하드웨어를 이용한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
- 필요한 만큼 다수 소스로부터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단일 데이터웨어하우스 모델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

□ 인메모리 컴퓨팅(In-Memory Computing)

- ◎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분석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리속도를 높여 줄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이 부각
- 방대한 양의 정보를 서버 메인 메모리에 보관하지 않고, 실시간 분석하는 인메모리 기술이 분석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
- 또한 전원이 꺼져도 저장정보가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대용량 고속 처리가 가능한 플래쉬 메모리의 내장이 더욱 더 증가할 것

□ 초절전(저전력) 서버(Extreme Low-Energy Servers)

- ◎ 모바일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절전 프로세서를 응용·발전시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서버 기술이 등장했으며, 2012년에는 관련 기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초절전 서버는 현재 서버 보다 적어도 30배 이상의 운영효율을 선보이며, 에너지 절감효과와 동시에 처리속도도 개선
- ◎ 그러나 초절전 서버는 일부의 애플리케이션에만 공간, 에너지 사용량, 비용 측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광범위하게 구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2. 딜로이트: 연방정부가 주목해야할 10대 기술동향

- 딜로이트 컨설팅은 업무에 사용되는 기술 발전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향후 **18개월 동안 업무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10개 기술을 선정**하여 매년 연례 기술동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딜로이트 컨설팅은 2011년 9월 '**2011 기술동향보고서(Tech Trends 2011)**'를 발표

□ 비주얼리제이션(Visualization)

- ◎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세트 속에서 찾는 통찰의 중요성 증대
 - 비주얼리제이션이란 이미지와 양방향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및 고밀도 데이터세트를 탐색하는 것
 - 새로 개발된 다양한 도구와 기업정보 및 분석의 품질향상,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구조 데이터의 잠재력과 모바일 사용의 혜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주얼리제이션의 현실화 기반 마련
- ※ 비주얼리제이션은 표나 텍스트와 같은 비구조적인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며, 개선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훌륭한 기제로 작용
- ◎ 정보 기반이 튼튼한 조직들은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해 경쟁사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음
 - 비주얼리제이션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 제공

□ 올모스트-엔터프라이즈(Almost-Enterprise) 애플리케이션

- ◎ 클라우드 내에서 모든 것이 서비스로 발전하고, 엔터프라이즈 내외부의 소셜컴퓨팅, 아웃사이드 인 아키텍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IT 부서의 기존 역할이 영향을 받고 있음
 - 클라우드 혁명의 결과 서비스의 가치 및 비용에 있어 중앙 IT 부서처럼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 올모스트-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은 미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몇 년이 아닌 수 주 및 수 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을 CIO에게 제시

- 기관들이 모듈식 개발, 빠른 도입, 많은 비용 절감 등과 같은 혜택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일부 관리 및 조달 프로세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사이버 정보(Cyber Intelligence)

- ◎ 중요 정보자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사이버 접근 필요성 증대
 - 보안 요소들을 한 데 묶어 실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및 프로세스를 넘어서는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
 - 재빠른 탐지 후 반응하는 사이버 보안 기능과 함께, 배우고 적용하며 상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내외부 상태를 파악하여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는 사이버 정보의 중요성 증대
- ◎ 사이버 정보는 조직이 직면해 있는 역동적인 위협에 걸맞는 역량 프레임워크를 제공

- **사이버 정보:** 광범위하고 정교한 위협 관리 전술을 완전하게 갖춘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시선 밖의' 위협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줌
- **사이버 분석:** 시스템, 네트워크, 물리적 보안로그 및 외부의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 간의 패턴을 감지하여 미래의 공격을 예측
- **사이버 수사:** 기본적인 분석을 넘어 어디에서 공격이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침입 이후 무엇을 했는지 등을 자세하게 추적
- **사이버 물류:** 보안에 대한 아웃사이드-인 관점을 도입하여 상위 공급자로부터 인사 소싱에 이르는 가치망 내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 혁명가로서의 CIO

- ◎ 클라우드, 소셜컴퓨팅, 모빌리티 등 근본을 뒤흔드는 기능들로 인해 CIO들은 업무 관리자 이상의,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전략가 이상의 역할을 할 필요성 대두
 - 파괴적 기술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CIO들은 혁신을 의미 있는 기여로 만들고 미래에 대한 공격적인 계획을 세우며 책임을 지는, 사업 전략가 이상의 역할을 수행
 - 앞으로 CIO는 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담당할 뿐 아니라 그 품질, 용도 및 기업 혁신의 잠재력까지 책임지게 될 것
- ◎ 권력이양형(devolutionary) CIO → 발전형(evolutionary) → 혁명적(revolutionary) CIO로의 변화 필요

※ 혁명적(revolutionary) CIO : 기술혁신을 토대로 잠재적으로 새로운 기업 솔루션을 적극 개발

□ ERP의 부활

- ◎ ERP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ERP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임
 - 클라우드로 인한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핵심 거래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ERP의 역할이 강화
 - ※ SAP은 2010년말 라이선싱 수익의 34%가 증가하여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최근 발표했으며, Oracle의 프로젝트 라이선스 판매의 경우 현재 분기를 기준으로 10%에서 20% 증가할 전망
 -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은 계속해서 상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정보 분석, 모빌리티, 소셜 등을 위한 보완적 전략 플랫폼을 개발
 -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방식은 급격한 변화를 거칠 것이지만, ERP는 계속될 전망

□ 실분석(Real Analytics)

- ◎ 앞으로의 경쟁의 우위는 명확성과 정확성에서 앞서는 것과 경영진이 계획하는 다음 퍼즐을 빨리 풀어내기 위한 제도적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
 -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조직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더 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전반적인 확실성은 감소하고 있음
 - 퍼즐과 미스테리는 실분석의 범위에 해당되며, 실분석은 보다 총체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접근을 통해 효과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및 실천을 지원
 - ※ 실분석은 더 현명하고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후견지명이 아닌 선견지명을 통해 기관들이 모색하고 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 주요 조직들은 경영진들의 지원 속에서 대대적인 이니셔티브에 착수하며 실분석을 통한 비전을 달성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
 -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특수한 자원을 활용할 줄 알며 해답으로 이끌 수 있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한 분석 도구를 갖춘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

□ 소셜컴퓨팅(Social Computing)

- ◎ 소셜컴퓨팅은 더 이상 유행이나 젊은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미로 간주되어서는 안됨
 - 조직들은 점차 역동적인 생태계와 급속한 혁신에 좌우되고 있음
 - ※ 소셜컴퓨팅은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며, 급속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핵심
 - 기업들은 소셜컴퓨팅을 장려함으로서 가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소비자 정서, 직원의 스킬 및 시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음
- ◎ 소셜컴퓨팅을 위해서는 지식을 확인 및 발견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며 분산된 지식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필요
 - ※ 소셜컴퓨팅은 ‘집단(tribes)’으로 하여금 의사소통, 협업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함

□ 사용자 참여(User Engagement)

- ◎ ‘시스템업(system up)’보다는 ‘유저다운(user down)’이 중요
 - 소비자참여 및 인터넷 기술의 등장은 업무에서의 IT 도구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음
 - Bing(Bing), 위키피디아(Wikipedia), 페이스북, 구글메일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검색, 지식관리, 협업 및 생산성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 주고 있음
- ◎ 사용자 참여는 새로 연결된 소비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수익 채널로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직원들에게 힘을 부여하여 상황이면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효율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 사용자 참여를 훌륭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과 인체 공학적 이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깊은 기술적 요소가 필요
 - ※ 수동적으로 록앤필을 개선하던 것에서 업무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함

□ 어플라이드 모빌리티(Applied Mobility)

- ◎ 2012년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PC 출하량을 넘어설 전망
 - 연결된 지능 자산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조직들은 모바일 세상에서 자신의 브랜드와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착수
 - ※ 최근의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포춘지 선정 5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고객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기반 웹페이지를 가진 것으로 조사
 - 이러한 성장은 지속될 것이며 특히 클라우드 및 소셜컴퓨팅 기술로 인한 위치기반 서비스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새로운 소비자 행태 및 기대가 구현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
- ◎ 모빌리티가 갖는 강점 중 하나는 직원과 협력사간의 상호작용 방식 등에서도 같이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
 - 모바일 기술은 기관들이 그 구성원들, 협력사 등과 더욱 강력한 연결관계를 맺도록 해주며, 강력한 소셜 인프라와 결합되었을 더욱 강화

□ 역량 클라우드(Capability Clou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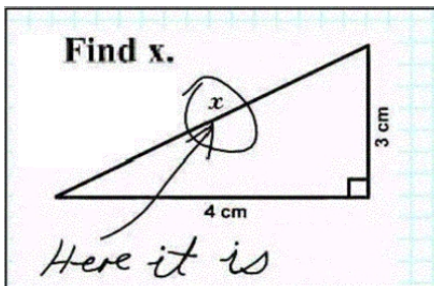
- ◎ 용량과 역량의 차이는 의미론적인 차이를 넘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접속과 계획적이고 콘텍스트가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의 차이와 비슷
 - 역량 클라우드는 역량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넘어 사업 목표와 기업 목표를 직접 달성하기 위한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
 - 역량 클라우드 도입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멀티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가능해 질 것
- ◎ 역량 클라우드는 IT의 중심을 기계에서 기업의 가치로 옮기며 IT의 역할 및 잠재적인 가치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3. EMC : 2012년 IT 10대 예측

- 미국의 선도적인 10대 테크놀로지 기업 중 하나인 EMC는 다양한 분야에 속해있는 IT 종사자들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IT 10대 예측'을 발표해 오고 있음
- EMC는 2011년 11월 '**2012년 IT 10대 예측(Ten IT Predictions for 2012)**'을 발표

□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은 '간편함'

- ◎ 앞으로는 직관적이고 찾기 쉬우며, 설치가 용이하고 어디서든 사용하기 편리한 앱이 각광을 받을 것임



- 필요이상의 기능이 탑재된 앱 디자인에서, 사용하기 쉬운 앱 개발로의 전환이 진행
- 단일기능의 기업용 앱 등장이 활발해지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다른 비슷한 앱들과 호환될 것임

□ '모바일 우선(Mobile First)' 전략

- ◎ 기업용 앱 개발자들은 '모바일 우선'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임
- 수준 높은 모바일 환경을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저 인터페이스를 모바일에 맞춰 축소하거나 모바일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것 이상을 의미
- ※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신호가 약하거나 아예 잡히지 않아도 앱을 쓸모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필요하기도 전에 유용한 정보를 캐시에 저장할 것인가?
모바일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저장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
- 전통적인 데스크톱으로 백포트(Back-ported : 최신 버전의 기능이 이전 버전에서도 지원되도록 구현하는 것)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

□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Digital Business Model)

- ◎ 성공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두고 성장 (MIT Peter Weill 교수)
-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3대 요소는 '가치를 전달해 사람들이 참여 하도록 만드는 콘텐츠', '참여도를 높이고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가 시키는 경험', '콘텐츠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
- 자사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

□ 빅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수요 증가

- ◎ 최근 많은 사람들이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거나 과학적 연구를 돕거나 공공 정책 수립하는 데 필요한 새롭고 지적인 파워 툴(power tool)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음



-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석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는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현재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이런 인재들을 원하고 찾아 나설 것

□ 기업 IT, 외부 IT 서비스 업체와 경쟁

- ◎ 2012년엔 기업 IT 조직이 외부 IT 서비스업체와 경쟁하는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
 - 현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기업 내부 IT 조직의 위상이 변화하기 시작
 - 외부 IT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하는 방식으로 현업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내부 IT 조직 혁신이 필수

□ 클라우드 기술의 부각

- ◎ 2012년엔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거의 모든 지역과 산업에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 클라우드 기술로 인해 기업의 IT 환경은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고 이는 전체 IT 부서에 걸쳐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
 - IT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될 것

□ IT 보안의 변화, 새로운 보안 기업 등장

- ◎ 지능형 타깃 지속 공격(APT)의 등장은 보안 전문가들에게 보안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을 요구
 - 정보자산의 가치는 증가하고 있고, 고도화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전문가들이 이미 시장에 존재
 - 2012년에는 더 많은 IT 보안 부서들이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기술 플랫폼 지원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임

□ 대형 IT 서비스업체보다 전문화된 IT 서비스 기업이 각광

- ◎ 고객사의 비즈니스 환경과 IT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화된 분야에 집중하는 IT 서비스 업체들이 강세
 - IT는 '모든 것의 빌더(builder)'에서 '빌더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빠르게 변화
 - 특정 지역이나 한 분야에서 수직적으로 혹은 그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이 각광을 받을 것

□ 비용은 줄고, 소비는 증가

- ◎ 2012년엔 클라우드로 인해 IT서비스 비용이 감소할 것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기술 요소들은 산업표준기술과 오픈소스 덕분에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며, 운영비용 역시 자동화에 대한 투자 덕에 빠르게 하락할 것
 - 기술비용이 낮아진 만큼 사람들은 이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임

□ 빅 데이터와 분석학,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

- ◎ 이미 세계는 정보경제(an information economy)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와 분석학은 이러한 전환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 빅 데이터는 잠재적으로 부와 가치를 창조하고 위험을 피하며, 우리 삶을 개선
 - 2012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를 기회로 여기게 될 것임

4. NIPA: 2012년 IT산업 10대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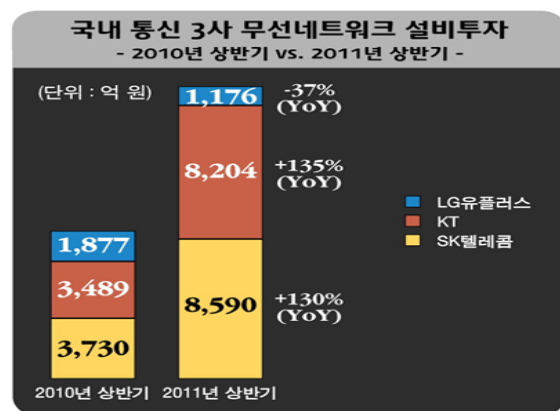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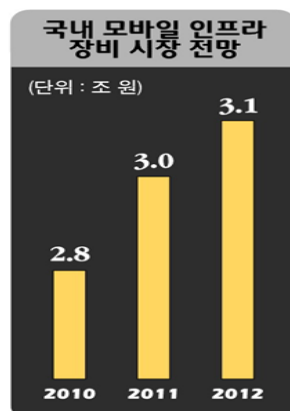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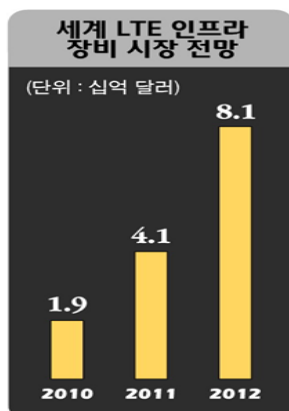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매년 'IT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 IT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IT 산업 10대 이슈'를 발표해 오고 있음
 - NIPA는 2011년 9월 '2012년 IT 산업 10대 이슈'를 발표

□ 클라우드

- ◎ 기업들의 점진적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시작
 - 2012년 국내 대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은 9.2%, 중소기업은 6.1%로 조심스러운 도입이 예상
 - 보안은 여전히 클라우드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비용절감 효과 증명
 - 표준이 없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이 낮다는 점도 클라우드 도입의 저해 요인 중 하나
- ◎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퍼스널 모바일 클라우드 주도권 경쟁도 본격적화 될 전망

□ 4G LTE

- ◎ 2012년 세계 LTE 서비스 가입자 수는 총 2,467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 0.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북미, 북유럽, 일본 등에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
 - 국내 LTE 서비스 가입자 수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
 - ◎ LTE 인프라 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
 -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LTE 망 구축이 이어지면서 2012년 세계 LTE 인프라 장비 시장은 전년 대비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국내에서는 기존 2G/3G 설비투자 증가율이 감소하는 대신 LTE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



□ 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안투자가 증가되고 관련 정보보안 투자와 시장 확대를 촉진할 전망
 - 2011년 9월30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할 개인정보보호법 발표
 - 2012년에는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되겠지만, 2013년부터는 금융/제조/의료/교육 등 각 산업분야로 확산될 전망
- ※ 방통위는 2012년 사이버 보안위협 사전 예방용 예산으로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안부도 2012년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51% 증액
- ◎ 스마트폰, SNS 등 신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 될 전망

□ 차세대TV

- ◎ 런던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 호재로 차세대TV 시장의 급격 성장 예상
 - 2012년은 디스플레이부문에서 OLED 사용이 본격화되고, 스마트 TV에서는 구글TV의 부활을 알리는 해가 될 전망
 - 국내 업체들의 차세대 TV 투자도 본격화 될 전망
-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내년 런던올림픽에 맞춰 55" OLED TV용 패널을 양산할 계획이며 LG디스플레이도 내년 OLED 패널에 3조원을 투자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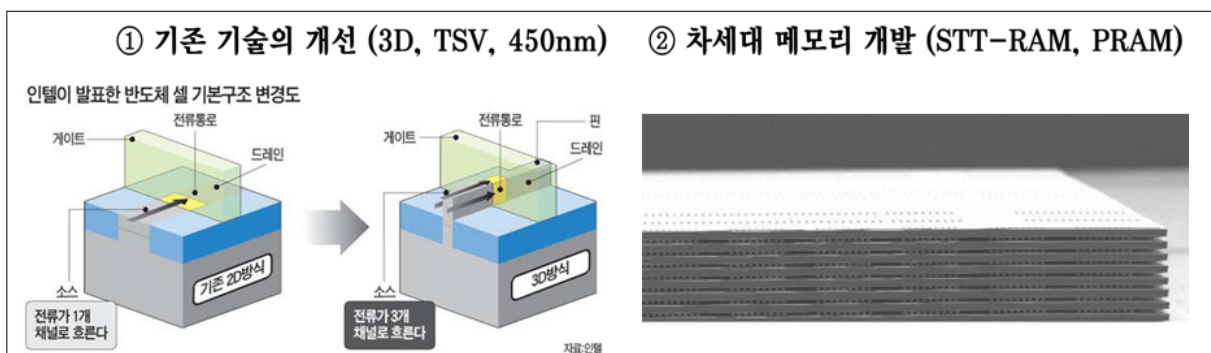
□ IT융합

-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으로 융합산업 본격성장 예고
 - 융합이란 2개 이상의 상이한 요소들이 하나의 요소로 수렴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경제/사회적 현상
 - 융합을 가로막던 제도적 장애물이 해결됨에 따라 2012년부터 다양한 기술/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
- ◎ 또한 2012년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IT융합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문학을 결합한 아이폰처럼, A와 B를 결합시키기 전에 과연 이러한 융합의 효용과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차세대 부품

- ◎ 메모리 반도체 미세공정화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대한 관심 고조
 - M램, R램, P램 등 차세대 반도체는 초미세 회로에서 전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특징
 - 처리속도·내구성을 강화한 새로운 제품 개발 경쟁 업체들 사이 합종연횡도 활발

<메모리 반도체 한계 극복 방안>



- ◎ TV용 AM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OLED 조명 등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LCD 패널산업의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할 전망

□ 차기정부 IT정책

- ◎ 정권교체에 따른 차기정부 IT정책에 대한 관심도 고조될 전망
 - IT파워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함에 따라 차기정부 IT 정책은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라는 전망 우세
- ※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성장한 애플,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로 부각된 구글 리스크, HP PC사업부 매각 검토 등
- 또한 차기 정부에서 IT전담 부처가 설치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각 정부의 주요 IT정책>



□ 윈도우8

- ◎ 2012년 초 스마트폰과 PC 인터페이스 간의 장점을 접목한 윈도우8 출시예정
 - 윈도우8 출시와 함께 윈도우 8 태블릿이 전체 미디어 태블릿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할까에 대한 관심 고조
- ※ 윈도우8 태블릿의 미디어 태블릿 시장 점유율 전망: 2011년 0% → 2012년 4.2% (가트너)
- 또한 윈도우8 출시가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 스마트기기

- ◎ 2012년은 제3의 모바일 플랫폼 경쟁이 치열할 전망
 - 안드로이드, iOS 다음의 스마트폰 플랫폼 후보, 미디어 태블릿 플랫폼 후보에 대한 경쟁 치열
 - 특히 Microsoft 윈도우폰이 제3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고조
- ※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폰 OS 점유율 전망: 2011년 2.7% → 2012년 11.1%(IDC)
- ◎ 하드웨어로 차별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들면서 소프트웨어/서비스로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임

□ 빅 데이터

- ◎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폭증하는 데이터가 경제적인 자산이 되는 '빅 데이터'시대 도래
 - 빅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 집합(McKinsey Global Institute)
- ◎ 빅 데이터 시대에는 어떤 기술시장이 주목을 받을 것인지, 빅 데이터의 활용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전망
 -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시 예산 절감, 대내외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 삶의 질과 정부 신뢰도 향상이 가능
- ※ 공공분야 빅데이터 활용 시 경제 효과는 국내의 경우 10.7조원 이상(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5. 삼성SDS: 2012년 IT 8대 메가트렌드

- 삼성SDS는 매년 'TLC(Thought Leadership Conference)'를 개최하고, **IT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IT Mega Trend'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삼성SDS는 2011년 10월 '2012년 IT 8대 메가트렌드'를 발표

□ 소비자 지향적 기술 대중화(Popsumerization)⁴⁾

- ◎ 기술을 선도하는 주체로써 기업과 소비자 간 구분이 사라지고, 소비자 지향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중요하게 부각
 - 현재 IT기술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IT기술이 기업에 적용되고, 다시 소비자에게 전파되는 순환구조
 - 앞으로는 일반 IT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사용 기술이 오히려 기업에 적용돼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

□ 네트워크 통한 협력적 소비(SNC : Social Network Consumption)

- ◎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들의 협력적 소비를 뜻하는 '소셜네트워크 소비' 활성화
 -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과거 기업 주도로 소비자를 모으던 소셜 비즈니스 형태는 한 단계 진화해 개인이 비즈니스의 주체로 나서 또 다른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산을 서로 공유
 - 개인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만들어 공유하는 형태로 2012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유행할 전망
- ※ 소셜커머스를 넘어 소셜 펀딩과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가 그 예

□ 게임 메커니즘 활용 비즈니스(Gamification in Business)

- ◎ 게임 메커니즘을 활용한 비즈니스인 '게이미피케이션 비즈니스'에도 주목
 - 기업은 비즈니스에 게임 메커니즘을 도입해 재미로 몰입할 수 있게 해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 각 시대마다 사회를 관통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현재의 분위기는 '재미'
- 주입식 마케팅보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마케팅이 유행할 전망

4) 대중적이라는 뜻의 'Popular'와 소비자화라는 뜻의 'Consumerization'을 합쳐진 신조어

□ 웹 기반 사물 연결과 제어(Web of Intelligent Things)

◎ 2012년에는 사물통신(M2M)의 본격적인 확산이 예상

- '웹을 통한 사물의 연결과 제어(Web of Intelligent Things)'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냉장고 등 디바이스들이 상호 연결되고, 나아가 웹을 통해서 제어 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한 것을 의미
- 2011년 M2M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면, 2012년에는 다음 단계인 편리한 관리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사물 네트워크를 웹 환경에서 제어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해질 전망

□ 소셜 분석(Socialytics)

◎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가능해지면서 비정형화된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됨

- 소셜 분석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결과물

※ Socialytics: Social + Analytics

- 기업은 자사에 대한 SNS 상의 글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맞춤형 이면서 즉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가능해졌으며, 의사결정 단계의 주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확산이 예상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IT(Life Enhancing IT)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IT'도 메가트렌드 키워드

- IT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 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
- IT를 활용해 인간 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IT가 구현될 전망

□ 모바일 컴퓨팅 보안(Mobile Computing Protection)

◎ 모바일 보안의 필요성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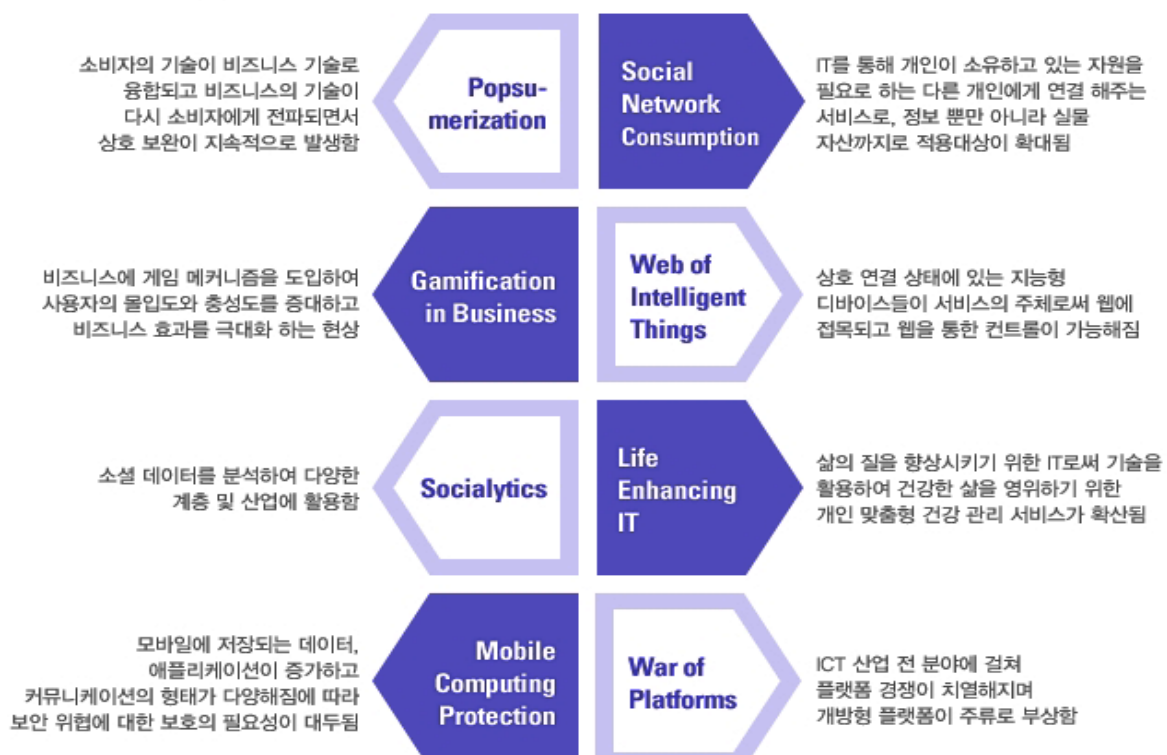
- 모바일이 PC의 기능을 대신하는 등 생활의 중심부분이 되면서, 저장되는 기업 및 개인 정보를 대상으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의 필요성 대두
-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는 기업 및 개인 정보 등 유통되는 데이터에 보안 위협이 증가 하는 상황

□ 플랫폼 전쟁(War of Platforms)

◎ ICT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업 간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방형 플랫폼이 주류로 부상할 전망

- 기업이 자사의 핵심자산(물류 인프라, 결제 시스템 등)을 외부 업체에 제공하는 등 플랫폼 활용을 본격화
- 개방화를 통해 OS 플랫폼 제약을 받지 않는 콘텐츠/서비스들이 확대되는 등 경쟁의 중심축이 변화

<2012 8대 IT 메가트렌드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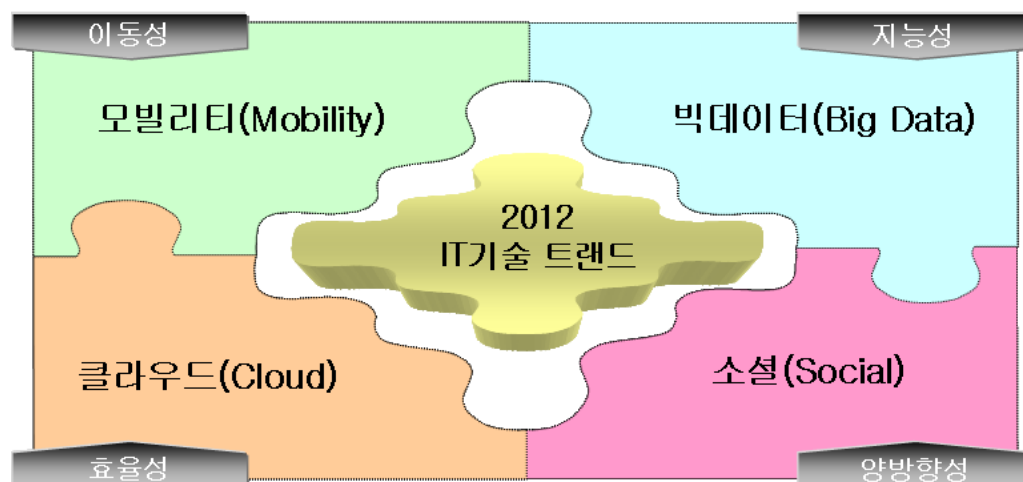
3. 결론 및 시사점

◎ 2012년은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IT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할 전망

- 2012년 IT분야의 최대 키워드는 모빌리티(Mobility),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소셜(Social)이 될 전망
- 이 4가지 기술들이 상호 결합하면서 더욱 파워풀한 서비스와 역동적인 시장을 창출

※ 개개인의 행동과 생활에 최적화된 인간중심의 서비스 실현이 가시화

<2012년 4대 핵심 키워드>



□ 혁명의 일상화를 주도하는 모빌리티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대변되는 이동성, 즉 모빌리티(mobility)란 단어는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를 규정하는 대표 핵심어

- 스마트폰 2천만 시대 진입과 함께 국내 모바일 시장이 크게 진화

※ 기업들은 앞 다투어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고, 스마트 교육, 스마트 의료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활발히 개발

◎ 스마트 디바이스가 보편화로 공급과 소비의 주체가 기업 중심에서 인간(Human) 개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시장선점이 필요

□ 2012년은 빅 데이터의 해

- ◎ 인터넷, 스마트기기,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데이터가 폭증하는 이른바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
 - 이제는 누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활용하느냐의 경쟁
- ※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숨은 의미를 찾아내어 가치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데이터 분석 기법과 도구들이 주목
-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는 한 보고서를 통해 '모든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은 빅데이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
- 폭증하는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실천적인 빅 데이터 전략이 필요

□ 여전히 주목받는 클라우드

- ◎ 2012년 클라우드는 가상화 인프라 진화에 탄력이 붙어 성장이 계속될 전망
 - 특히 애플의 아이클라우드(iCloud)로 인해 퍼스널 클라우드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 삼성전자 S클라우드, KT 유클라우드, LG 유플러스박스, 네이버 N드라이브 등 국내 클라우드 시장과의 치열한 경쟁 예상
-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차별화 역량을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

□ 수익을 창출하는 소셜컴퓨팅

- ◎ 세계 인구의 20%인 12억 명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가운데 소셜 컴퓨팅은 다음 단계로 들어섬⁵⁾
 - 지금까지 명확한 수익모델이 없었던 소셜컴퓨팅 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필요
 - 소셜커머스를 넘어서 퍼스널 클라우드, 모빌리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노력 필요

5) 피터 손더가드, Gartener,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IT산업 전망', 2011. 11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2011.10
- 2 월간 자동인식&보안2012년 국내 IT 위기 맞을까?, 2011.11
-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1년 IT 핵심이슈 및 트렌드 분석, 2011.1
-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분야 R&D 기획방향, 2011.8
- 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년 IT트렌드 전망 및 정책방향, 2011. 1
- 6 LG경제연구소, 2012년 경제전망, 2011. 9
- 7 LG경제연구소, 새로운 IT강자, 버블을 먹고 자란다, 2011.11
- 8 NIPA, 2012년 IT산업 10대 이슈, , 2011.11.
- 9 SERI,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2011. 9

국외 문헌

- 1 Deloitte, Technology Trends 2011: A Federal Perspective, 2011.9
- 2 EMC, Ten IT Predictions for 2012, 2011.11
- 3 Gartner. Strategic Technologies Top 10, 2011.10

웹 사이트 및 기타

- 1 가트너, <http://www.gartner.com/>
-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http://www.cis.go.kr/>
- 3 딜로이트, www.deloitte.com/
- 4 EMC, <http://www.emc.com/>

IT&Society 과월호 목록

2011

Vol.1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① - 핀란드

Vol.2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가축방역시스템 선진사례 분석

Vol.3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② - 호주

Vol.4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③ - 영국

Vol.5 주요국의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와 정책방향

Vol.6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④ - 미국

Vol.7 스마트 시대의 재난재해 대응 선진사례 분석

-
1. “IT&Society”는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2. “IT&Society”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슈에 관한 최신 정보화 트렌드 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입안자 등에게 IC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보고서입니다.
 3.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본 내용에 대한 문의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 한영미 책임연구원(ymhan@nia.or.kr)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www.itglobal.or.kr